

스포츠 포커스

전남 바이애슬론 대표팀

동계스포츠 불모지서 땀으로 일군 전국 최강



왼쪽부터 배창환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 조인희·문지희 선수, 김상욱 전남바이애슬론 전무이사, 이봉우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전무이사.



조인희

문지희

“이젠 세계로...
월드컵 대회
30위권 목표”

눈이 아닌 땅위에서 바이애슬론 대회가 열린다? 동계 스포츠 종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바이애슬론(스키 거리경기와 사격이 혼합) 대회가 6월에 열린다고 하면 모두 의아해 할 것이다.

최근 나주 영산포에서 제25회 회장배 전국하계바이애슬론대회가 열려 문지희(20·전남체육회)와 조인희(19·전남체육회)선수가 각각 금2, 금1개를 획득해 동계스포츠 종목의 불모지 전남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윤혜윤(21·전남체육회)선수는 부상으로 컨디션 조절에 힘을 쏟고 있다.

하계 바이애슬론대회는 동계종목과 달리 1km를 달리고 복사(업드러 썬) 다섯발을 사격한 다음 다시 1km를 뛰고 끝인하면 되는 경기로 동계 종목 선수들의 경기감각을 살리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회로 열리고 있다.

조인희·문지희 선수는 전남이 동계스포츠 불모지임에도 바이애슬론에서는 전국 최강의 전력을 보유했다. 전본인이다. 전북 출신인 이들은 이번 대회뿐 아니라 지난 2008 제89회 동계체전에서 조인희는 계주와 스프린트, 개인경기에서 3관왕에 올랐으며 문지희도 은메달 4개를 획득해 전남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특히 문지희 선수는 지난 평창에서 열린 월드컵 7차대회에서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사상 최초로 37위에 올라 대한바이애슬론 연맹에서 1천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한 한국 바이애슬론 대들보다.

전북 무주중학교와 무주고고를 함께 다니며 단짝 친구이기도 한 이들은 고교 졸업 후 나란히 전남체육회에 입단해

이제 전남사람이 다 됐다.

조인희와 문지희는 “전라북도도 호남이기 때문에 전남이 고향이나 다름없다”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드컵에서 30위권에 들어 고향과 한국을 빛내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들 두 선수의 선전에는 김상욱 전남 바이애슬론 전무이사(국가대표 코치)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가 바탕이 됐다.

광주 서강중학교시절 육상 중장거리 선수생활을 했던

회장배 하계 바이애슬론대회서

문지희 금2, 조인희 금1개 획득

김상욱 코치 헌신적 지도도 한몫

김 전무는 전남체육고 1학년 때 처음 바이애슬론에 입문, 2년만에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지난 1988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됐다.

하지만 당시 동계스포츠 불모인 전남출신으로는 강원도 인맥으로 형성된 대학팀으로 가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2년간 국가대표 생활을 했다. 또한 군 복무중인 31사단 단기사령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김 전무는 88년 69회·89년 70회 동계전국체전에서 각각 2관왕에 올랐고, 1990년 삿포르 동계아시아게임 단체전 3위에 오르는 등 공로가 인정돼 1990년 체육훈장을 받기도

했다.

화려한 현역생활을 했지만 김 전무는 동계운동 불모지인 전남출신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모든 동계종목은 강원도 출신이 아니면 실업이나 대학에 적을 둘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군 제대후에도 실업팀이나 대학에 소속이 결정되지 않아 결국 운동을 접어야 했다.

2002년에는 국가대표를 지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역시 강원도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와 전남에 팀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만에 사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무의 바이애슬론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인정돼 지난 2005년 국가대표팀 코치로 발탁돼 현재까지 선수들을 지도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전무는 “전남이 동계 스포츠 불모지로 끌어주는 선배가 없어 무소속으로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된 후 곧바로 고향에 팀이 없어 사임했을 때는 운동한 것을 후회했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지난 2003년 전남근대5종 바이애슬론 연맹이 분리되면서 바이애슬론 전무이사를 맡아 2007년 1월 팀을 창단, 1년만인 제89회 전국 동계체전에서 금3 은4개의 위업을 달성했다.

김 전무의 바람은 정식으로 팀이 창단 돼 전남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김 전무와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꿈인 팀 창단이 가시화 돼 동계스포츠 불모지 전남 팀이 전국에 위상을 떨칠 날을 기대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사진=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상욱 전남바이애슬론 전무가 선수들의 복사 사격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다.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우소웃청정고기전문점
북구 매곡동 두레권강랜드 옆
메운점정식 무기지점점 제주순우포크지점점
대표 김 정 관
☎(062)575-9592

자연산할어전문 "대가"
서구 품암동 윤리중학교 정문앞
장흥호진 청정바다에서 직송 일식점품격의 맛집
대표 김 선 임
☎(062)375-3388

토 방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한식 한정식 전문
☎(062)226-9841

와쿠와쿠
동구 황금동 학생회관 정문앞 2층
물, 초밥, 돈가스, 회 전문
대표 최 흥 석
☎(062)224-5999

일품명가
북구 양산동 우미@도로 건너편
전통중화요리 일품살 자장 전문점
대표 김 옥 중
☎(062)574-7800

금광안전철물
광산구 흑석동162-1
건축지체 공구판매 및 수리업대 안전용품
PVC자재 전기용품 집철물
☎(062)511-3133

진선공인중개사사무소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서로타리 중앙빌딩
빌딩 주택 월세 사무실 토지 임대 각종부동산
대표 윤 병 주
☎(061)692-1052

부자부동산
북구 양산동 강남 영재학원1층
토지 건물 상가 아파트
매매 임대투자상담
☎(062)576-0062

조은공인중개사
서구 품암동 한국@상가 109호
APT, 상가, 매매 임대전문
대표 조 윤 임
☎(062)654-8545

해 뜨는 집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뒤편
고등어이, 제주청정돼지, 아구찜전문
대표 이 승 범
☎(062)222-1818

세주수학전문학원
서구 화정동 염주거리광주은행 맞은편
초, 중, 고 수학 수강생 수시모집
원장님 1 : 1 개인지도
☎(062)385-0069

알대랑
서구 치평동 상무 먹자골목내
알요리 전문점
대표 이 옥 희
☎(062)371-1147

세미클리요기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뒤 KT맞은편 2층
세미클리요기
무료체험장운영
☎(061)686-2637

거북이마차
여수시 공화동 동초등학교 건너편 복운정앞
각종안주일체 손맛이최고
☎(061)683-6885

비포앤에프인테리어
남구 주월동 구) 대동공 건너편
벽지, 장판, 테코타일, 페인트
싱크대, 불박이장, 욕실공사
☎(062)653-0712

중앙페차장(주)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전자총고메인 노후차량 시교차량 임류차량
수출용 자동차고가 매입
☎(062)945-2580

송림화랑
동구 동부경찰서와 원불교앞
서화매매 각종표구전문
대표 양 원 호
☎(062)232-8716

미래사무용가구
북구 동림동 광산대교옆
핵심 의자, 소파, 사무용가구 직수입판매장
가격특별회 전국에서 가장싸게판매합니다
☎(062)511-7795

봉평메밀막국수
서구 치평동 상무 먹자골목내
메밀막국수 메밀묵사발 메밀수육전문
대표 천 미 라
☎(062)381-9995

무비철학관
여수시 공화동 구)세종각호텔 뒤편4거리
시주공합 작업 탁일 사업은 매매운 자녀운
대표 도 목 거 사
☎(061)662-5130

쌍봉식당
여수시 학동 우체국뒤 구)엄마회관
쌍봉정식 해물탕정식 오리불고기 생선김 생육살
가브리살 결혼 회갑 철순 계획식 대환영
☎(061)683-6885

금광안전철물
광산구 흑석동 흑석주요순 건너 수원택지지구내
현장납품 및 도·소매
대표 이 정 길
☎(062)511-3133

천지인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옆
동서양화 고서화 골동품 감정매매
대표 최 창 섭
☎(011)640-6689

플러스공인중개사
동구 중동로1가 지하도입구 롯데리아옆
상가 매매 임대전문
대표 김 흥 운
☎(062)222-3455

국제광택전문샵
서구 품암동 한방병원에서 신암교회가길
광택 코팅 부분도색
스팀세차
☎(062)655-9690

운남직업소개소
광산구 월곡동 LG전자빌딩
미장, 조제, 목수, 활고, 테일, 용접, 배관, 보일러
이시바, 접수리, 수도철거, 접수리 전문
☎(062)956-3727